

간호사, 임상연구에 도전하라

연구결과 근거해 간호방법 개선한다면
간호사로서 가슴 뛰고 행복한 일

“간호사, 임상연구에 도전하라.”

임상연구와 논문쓰기에 도전하는 간호사들을 위한 입문과정인 ‘효과적인 간호논문 작성법’ 교육을 병원간호사회에서 지난 5월 실시했다.

“간호문헌을 위한 학문적 글쓰기” 주제강연을 한 박승미 호서대 간호학과 교수는 “근거기반간호가 강조되면서 병원간호사들이 갖춰야 할 자질로 ‘연구 역량’이 요구되는 추세”라면서 “임상에서 바쁜 업무 중에 연구를 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도전해보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이어 “임상연구를 하고 좋은 연구논문을 쓰는 것이 바로 간호의 성과를 널리 알리는 방법이며, 간호를 과학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길”이라며 “특히 공신력 있는 저널에 연구논문이 게재되면 세계적으로 읽히게 되고, 나의(우리의) 간호를 알리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간호하며 느낀 고민 연구주제로 선정

박승미 교수는 “진심으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내 일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가 생긴다”면서 “실제 간호하면서 느꼈던 고민과 문제의식이 녹아든 연구주제, 꼭 해결해보고 싶다고 생각한 연구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상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연구의 결과물은 간호프로토콜을 바꾸고 환자간호를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이는 정말 가슴 뛰고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말했다.

박승미 교수는 “좋은 연구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선 ‘학문적 글쓰기’를 잘해야 하며, 많이 읽고 많이 써보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논리적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글을 써야 하며, 간호를 전공하지 않은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품 팔음 팔아 학술정보 검색해야

‘논문작성 요령’ 주제강연을 한 김형순 인하대 신

소재공학부 교수는 “연구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고 해결하고 싶은 주제이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해내는 것이 연구”라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와 달리 논문에는 데이터, 정보, 지식과 함께 지혜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혜는 새로운 영감, 이론, 패러다임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김형순 교수는 “연구는 정보검색에서부터 시작되며, 인터넷 검색창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손품과 발품을 팔아 직접 학술정보를 검색해야 한다”면서 “논문주제는 독창성이 있고 참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학회에 열심히 참석해 다른 사람들이 발표하는 논문을 꼼꼼히 듣고 보라”면서 “공개된 연구논문들을 읽고, 또 읽고, 끝없이 읽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 혼자서 좋은 논문을 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연구주제를 찾는 단계에서부터 팀을 이뤄서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김형순 교수는 “독자가 읽고 싶게, 읽기 쉽게 논문을 써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좋은 글쓰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서문부터 참고문헌까지 논문작성의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계획부터 출판 후까지 연구윤리 준수

‘최신 연구윤리의 동향 및 적용’ 주제강연을 한 정금희 한림대 간호학부 교수는 “좋은 연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정직하게 연구를 보고 하는 것”이라며 “연구계획단계부터 출판 후까지 전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가 없는 연구가 좋은 연구”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낱조, 조작/변조, 표절, 중복출판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금규 기자 kschung@koreannurse.or.kr

충북간호사회 합창단 공연봉사 실시

충북간호사회(회장·한명자) 합창단은 충주 예방의 집 요양원을 6월 10일 방문해 공연봉사를 했다.

이날 합창단은 합창 및 중창 공연을 선보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스트레칭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명자 회장은 “바쁜 간호업무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합창연습을 하고 공연봉사를 하는 합창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합창단이 더욱 활성화돼 봉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간호사회 합창단은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충북간호사회 회관 교육장에서 정기적으로 연습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합창단은 하반기에도 공연봉사를 할 계획이다.

주혜진 기자 hjjo@

노인간호학회 ‘통합게가서비스’ 춘계학술대회

노인간호학회(회장·홍(손)귀령)는 춘계학술대회를 ‘장기요양보험 통합게가서비스의 시행에 따른 변화와 간호사 역량강화 전략’ 주제로 6월 16일 개최했다.

장기요양보험 통합게가서비스에서의 간호사 역할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합게가서비스 개편과 필요성’, ‘장기요양보험 통합게가서비스 시행 방향’, ‘장기요양보험 통합게가서비스 확대와 간호사의 역량강화 전략’, ‘통합게가서비스 운영 사례를 통한 간호사 역할과 비



전’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홍(손)귀령 회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도는 물론 차매국가책임제 등 새로운 국가 정책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확대될 전망이다”이라며 “관련 정책과 제도에 간호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

한국기초간호학회 ‘피부질환과 간호중재’ 학술대회

한국기초간호학회(회장·이경숙)는 ‘피부질환 및 피부노화의 최신지견과 간호중재’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6월 10일 개최했다.

‘피부구조와 기능 및 감각사정’, ‘욕창 및 창상관리와 간호’, ‘피부과학의 최신 동향’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피부재활 간호요법’ 주제로 오정욱 소장(오정욱피부재활센터 임상연구소)이 강연했다.

최명애 기초간호학회 초대회장이 참석해 학회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회원들의 논문 포스터 10편이 발표됐으며, 우수논문 포스터



4개 팀을 시상했다. 학회가 실시하는 연구비 지원사업 대상자도 선정됐다. 정책연구비 부문에 김연정 경희대 간호과학 대학 교수를 선정해 400만원을 지원했다. 일반연구비 부문에 서은주 가천대 박사과정생, 이민희 건국대 박사과정생을 선정해 각각 100만원씩 지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대구보건대 ‘간호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대구보건대 간호대학은 ‘간호창업(Nursing Startup) 경진대회’를 6월 14일 개최했다. 올해 1학기 동안 ‘간호전문직과 창업’ 교과목을 운영한 결과 간



호대학생들의 신선한 시각에서 생산된 스타트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혁신적인 사고로 간호 스타트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3학년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간호전문직과 창업’(지도교수·김복남)을 개설해 캡스톤디자인 교수법으로 운영했다. 캡스톤디자인은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 응용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경진대회에서는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드론, 3D 프린팅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간호 분야에 활용한 16개 아이템이 발표

됐다.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몸으로 뛰며 구현해낸 아이디어들이다. 특히출원 영역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영역에서 총 5개 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상했다.

심사는 임종재 계명대 공대 교수(전 한국창업지도사협회장), 김창덕 아이디어 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등이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간호분야에서 너무나 흥미롭고 실현가능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서 놀랐다”면서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간호대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금규 기자 kschung@

간첩 중앙간호봉사단, 베트남 간호봉사활동 전개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은 베트남 후치민 자빈성을 방문해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간호봉사활동을 5월 13~17일 전개했다.

중앙간호봉사단 소속 간호사 단원 10명이 참여했다.

중앙간호봉사단은 자빈성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해 양치질 및 손씻기를 주제로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보건실 물품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학용품·의류·양치세트 등을 전달했다.

후치민 반회엔대학교 보건실에도 물품을 지원했으며, 이 대학 한 국학과 학생들이 이번 봉사기간 동안 통역을 맡았다. 자빈성 교육청



의 소개를 받아 소수민족 초등학교를 방문해 보건실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번 베트남 간호봉사활동에는 대한간호협회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함께하는 사랑밭 등에서 물품을 협조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김포우리병원 정은숙 간호사, 친절대상 상금 복지에दान에 기부

병원에서 고액친절대상을 받은 간호사가 상금 전액을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비로 기부했다. 미담의 주인공은 정은숙 김포우리병원 간호사다.

정은숙 간호사는 5월 15일 열린 김포우리병원 개원 15주년 기념식에서 고액친절대상을 수상하면서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항상 밝은 미소와 따뜻한 언행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환자간호에 헌신적인 점을 인정받았다. 고액 추천과 간호부서장 추천을 받았다.

정은숙 간호사는 “환자에게 받



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들의 치료비에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하겠다”면서 상금 100만원 전액을 김포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첩 KNA 대학생 활동가... 유니브엑스포 참여

대한간호협회 KNA 대학생 활동가들이 6월 3~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7 유니브엑스포 서울’에 참여했다.

유니브엑스포 서울은 대학생활 박람회로 기업 부스 체험을 비롯해 강연, 멘토링, 직무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행사다.

‘KNA 대학생 활동가’ 서울 및 경기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돼 홍보



부스를 ‘환자가 안전하고 간호사가 행복한 사회-건강한 대한민국 캠페인’ 주제로 운영했다. 홍보부스는 ‘금연·절주·성’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꾸며졌다. 서울 서초구보건소와 레이날코리아, 바른생각에서 후원했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홍보 캠페인,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간호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다.

‘KNA 대학생 활동가’는 전국의 간호대학생으로 이뤄진 대한간호협회 산하 학생조직으로, 2016년 8월 1기가 출범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독자주소변경 ☎ 02) 2260-2571

간호인력 해결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와 함께하세요!!

꼭 챙기세요~

- 01 RNjob 홈페이지의 구인기관 등록 시 취업 우선 연계
- 02 센터와 연계하여 현장실무훈련 취업 시 간호사 1인당 훈련비 100만원(4주 기준) 지급

지금 신청하세요~

- 03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간호관리자 교육 직원소통 전략 및 갈등관리, 정부지원 제도 소개

- 0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예정)병원 간호인력 교육 변화된 의료환경 이해, 우수사례 공유 및 벤치마킹
- 05 취업간호사 실습지도 표준화교육 최신 임상술기 및 표준화된 간호절차
- 06 권역센터



※ 대표전화 1522-1755로 연락주시면 중앙 및 권역센터 어디로든 연결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위탁 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1522-1755



정부 3.0